

22 순교자 스테반

Chapter

행 6~7장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59장 (열어 주소서)

오늘 배울



말씀

1. 교회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집사에 대해 압니다.
2. 그의 순교가 당시 교회의 선교에 미친 영향을 압니다.

마음 열기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용서했고,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초대 교회 당시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집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테반과 변론할 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치 못하자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테반을 '성전'과 '율법'에 관한 일로 공회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에 대해서 거슬리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신성을 모독한 것으로 돌로 침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반은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들의 거짓 고소에 대한 반론을 펼쳐 나갔습니다. 먼저 스테반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네 명의 인물이 살았던 중요한 네 시대, 즉 아브라함과 족장시대, 요셉과 애굽 피난시대, 모세와 광야시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은 왕정시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시기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 계셨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항상 움직이고 활동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예를 들어 현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스테반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의로운 자들을 배척하여 죽였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무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임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들은 유대인들은 격분하여 이를 갈며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스테반 집사는 교회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사울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순교에 뒤따른 교회에 대한 핍박은 도리어 복음이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9~60)

And they stoned Stephen as he was calling on God and saying,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Then he knelt down and cried out with a loud voice, "Lord, do not charge them with this sin."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Ac 7:59~60)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행 6:3~5)

(행 7:54~60)

(시 37:12~18)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신약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4절까지 읽고 그의 순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이것을 들은 대적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54~59절)?
2.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스데반이 평온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그를 둘러싼 대적들이나 환경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55~56절)?
3. 히브리서 12장 2절은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56절에서 스데반은 주님(인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시 116:15, 눅 12:37을 참고하여 그 차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4.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할 때 남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가 돌에 맞을 때 남긴 말들을 적고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해 보세요(59~60절).
 - ① 59절 (눅 23:46) :
 - ② 60절 (눅 23:34) :
5.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일어난 큰 핍박으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는 ① 어디로(행 8:1)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② 무엇을(행 8:4)했습니까? 주님께서 ③ 왜(행 1:8) 이런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실까요?
 - ① 어디로 :
 - ② 무엇을 :
 - ③ 왜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교회사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와 죽음까지도 뒤따른 스테반 집사와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39~1866) 선교사의 순교



1866년 9월 5일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던 조선 평양의 대동강 변에 와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며 성경책을 던져 주다가 조선 관군에 의해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였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는 1839년 9월 7일 웨일스에서 회중 교회 목사인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서 자라났으며 아버지 토마스 목사로부터 선교적 비전과 헌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

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실제로 런던 선교회에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곤 했습니다. 토마스는 어릴 때부터 모험을 좋아했고, 언어에 대한 재능이 뛰어났으며,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는 17세 때 아버지가 시무하던 하노버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으며 종종 지역 교회의 초청을 받아 설교도 할 정도로 신앙 성장이 빨랐습니다. 18세 때인 1857년, 그는 런던 대학교의 뉴 칼리지에 입학하여 학문 연구에 전력한 결과 2년 만에 학사 학위를 받았고, 신학부 과정에서는 최고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토마스가 20세 되던 해인 1859년 10월, 그는 런던 선교회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여 록하드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벅찬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전도하는 일은 순교하는 신앙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감사하는 영혼들을 볼 때 저는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교하는 신앙으로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 전할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날 토마스와 몇몇 젊은이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에 대한 소망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24세가 되던 1863년은 토마스에게 있어서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해 5월, 캐롤라인 고드프리는 훌륭한 신앙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5월에, 그는 런던 선교회로부터 중국 선교사로서 파송을 허락받았으며, 6월에는 런던 뉴 칼리지 신학부를 졸업하고 6월 4일 하노버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7월에 그는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4쌍의 영국인 선교사와 일행이 되어 중국행 풀 메이시호에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반의 긴 항해 끝에 그해 12월에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후 토마스 선교사 부부는 선교 사역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조랑말 타는 연습을 하고, 아침 식사 후 8시부터 12시까지 상하이 지역 언어를 배웠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베이징 지역 언어를 배웠고, 저녁 식사 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선교 모임, 독서로 시간을 보냈으며 매주 목요일 밤에는

중국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지낸 상하이에서의 3개월은 꿈과 같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는 그를 행복감으로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길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길이었고 슬픔과 아픔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당시 상하이의 환경은 캐롤라인에게 견디기 힘든 것이었고, 임신한 캐롤라인은 입덧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선교회의 선임 선교사인 뮌어헤드와의 불화로 인해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의 건강에 좋은 곳을 찾아보기 위해서 1864년 3월, 임신한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한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겨진 캐롤라인의 이웃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미국 선교사의 부인이 풍토병으로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캐롤라인은 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남편이 없는 가운데 아기가 유산되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녀 역시 유산의 영향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남편에게 '아기가 유산되었으나 자신은 괜찮으니 염려하지 마라.'는 위로와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구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담긴 아내의 편지를 받아 들고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캐롤라인을 소리쳐 불러보았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캐롤라인이 누워있는 곳에는 핏자국이 여기저기 뒤엉켜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은 아기가 유산된 후에 심한 하혈과 감염으로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통곡을 하며 쓰러졌고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선교에 대한 꿈도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런던 선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소천하기 전에 잠시 의식이 회복되어 '주님은 나에게 고귀한 분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느낀 상실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듯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모두 받았습니다. 더 이상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또 다시 복받쳐 오릅니다. 저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하여 제 마음을 견잡기가 어렵습니다. 어찌하였든 그녀의 평화롭고 고통 없는 죽음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1864년 4월 5일 당신의 신실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의 시신을 상하이 외국인 묘지에 묻고 정성스럽게 묘비를 세웠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토마스 선교사는 몇 달 후에 장인까지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장인은 딸이 선교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운명하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아이와 아내, 장인까지 잃은 삼중의 슬픔에 싸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의 상관인 뮌어헤드 선교사와의 선교관 차이와 불화로 인해, 그리고 건강의 악화로 인해 1864년 12월 런던 선교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통역관의 일자리를 찾아 '즈푸'로 떠났습니다. 토마스는 슬픔 중에도 즈푸에서의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즈푸로 온지 한 달 만에 뮌어헤드 선임 선교사와 화해를 했고 런던 선교회에 자기의 경솔함을 뉘우치는 사과의 편지도 써서 보냈습니다.

1865년, 토마스 선교사는 즈푸를 방문한 조선 천주교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온갖 핍박 속에서 참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불붙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의 선교지는 조선이다. 죽어가는 불쌍한 조선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어!" 이때부터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은 조선에 대한 선교의 열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에 속한 윌리엄슨 선교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토마스, 계속해서 세관에서 통역하는 일만 할 생각이요? 당신이 아내를 잃은 것이 얼마나 큰 아픈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를 잃은 아픔을 떨쳐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당신은 중국어와 러시아어, 몽골어 등의 언어에 능통한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이러한 언어의 재능을 주셨을 것 같소? 복음 전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함이 아니겠소." "그렇지 않아도 세관에 사표를 내려던 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믿음이 좋아서 이곳 중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 알았는데, 캐롤라인의 죽음 앞에서 여지없이 흔들리는 제 약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자식을 무덤에 묻는 아픔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실감이 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 들어 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은 조선에 복음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기로 준비된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 통역관 자리를 사임하고 다시 런던 선교회의 재임용을 받은 후 제1차로 조선 서해안을 잠시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66년 8월 9일,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여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 배는 미국 배로 조선과 무역을 하려던 차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배가 닿는 곳마다 조선 사람들에게 서툰 조선말로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걸 받으세요. 성경책입니다." 이때 나누어 준 중국어 성경이 500여 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북상하여 평양 만경대까지 다다르자 조선군과의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그 배가 닿는 곳마다 문정관을 파견하여 목적지와 항해의 목적을 물었습니다. 통역으로 승선한 토마스 선교사는 목적지가 평양이며 통상을 원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조선군은 경계하면서도 아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의 미국인 선장은 조선인 '이익현'을 협상하는 것처럼 속여 배로 유인한 다음 그를 억류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토마스 목사는 즉각 선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서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당신은 상관 마시오. 내가 선장이요." "정말 조선과 교역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고 보시오. 저들은 곧 내 말을 듣고 통상을 요구해 올 것이요." "이건 비겁한 짓입니다. 빨리 저 사람을 보내고 저들에게 잘못을 사과하십시오." 그러나 미국인 선장은 토마스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익현의 억류로 화가 난 조선의 군사들은 소극적이던 자세를 버리고 총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대포로 공격을 하던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은 조선 군사들의 공격이 거세지자 퇴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불어났던 물이 줄어들어 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배는 모래톱에 좌초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 리 없던 조선의 군사들은 일제히 총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순간에 토마스 목사는 "예수! 예수! 예수 믿으시오!"라고 소리치며 배 안에 있던 성경을 군사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선장이 외쳤습니다. "잠깐, 항복하겠으니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오." 그리고는 잠시 조용한 틈에 조선의 군사들을 향해 대포를 발사했습니다. 선장의 비열한 처사에 화가 난 조선의 군사들이 제너럴 셔먼호에 접근하여 일제히 불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배에 떨어진 불화살로 제너럴 셔먼호는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강으로 뛰어내렸고 목숨을 건져 물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성난 조선의 군사들에 의하여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동강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배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와중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는 한 손에 백기를 들고는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면서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두 팔을 높이 든 토마스 목사는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며 강물에 뛰어내렸습니다. 해엄을 쳐서 물으로 나온 그를 베려고 누군가 칼을 쳐들었을 때, 부교인 '박춘권'은 그를 생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당신은 총 한번 쏘지 않고 책만 던지던데."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오."

평양 감사는 그들이 국법을 어기고, 사교를 전하고, 백성을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부교인 박춘권에게 그들 모두를 참수토록 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동강 변에서 국법에 따라 한 사람씩 목을 베는 형벌이 시행되었습니다. 선장과 중국인들이 먼저 목이 베였습니다.

"다음 영국 야소교 목사 토마스!"라는 호명과 함께 북소리가 둥~ 둥~ 둥~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잡은 박춘권 부교의 손이 높이 올려졌습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는 "잠깐만, 이걸 받아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하며 가슴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박춘권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말에 놀라 멍칠했던 박춘권은 얼떨결에 그가 내민 성경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박춘권은 칼을 빼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66년 9월 5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웨일스 출신 선교사인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의 백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 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였던 박춘권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던진 성경책을 얻은 어떤 사람은 그 책을 낱장으로 나누어 방 안에 도배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방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 역시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목사가 전해 준 성경책을 읽은 홍신길이란 사람은 후에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동생 역시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섭이란 사람은 원래 천도교도였으나 동생과 함께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고, 황명대라는 사람은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기 때 "예수, 예수, 예수"하는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 훗날 평양 초대 교회의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19년 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항으로 입항하여 조선 땅에 복음의 불길이 일게 되었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